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 총여학생회 선거

비운동권 학생회, “학교 외부보다 학생에게 집중할 것”

‘경희의 화합’ 총학 후보
이수형 기자 dltbdf112@khu.ac.kr

Q. 출마한 계기는?
창업을 두 번 해보고 전문직시험(노무사) 준비, 공무원시험 준비도 해봤다. 다양한 경험을 해오다 보니 학교에 부족한 점을 느끼게 되더라. 고학번으로서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느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출마했다. 취업시장 사정이 나쁘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기도 했고, 경험자로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싶었다.

Q. 선거본부(선본)명을 소개해달라
공동체라면 그 크기에 관계없이 갈등이 존재한다. 우리대학에도 여러 갈등이 존재하고, 이런 부분을 외면하기보다는 드러내고 공론화해서 학생, 대학본부, 교직원 등 경희를 구성하는 주체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선본명을 ‘경희의 화합’으로 정했다.

Q. ‘비운동권 학생회’를 내세우고 있는데?
강의실 피티에서 비운동권이라고 이야기하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예시로 많이 질문한다. ‘이런 시국에 총학생회(총학)가 목소리 내지 않으면 되냐’는 식이다. 박근혜 게이트처럼 상식 밖의 경우에는 당연히 목소리를 낼 것이다. 실제로 12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를 지지하는 학생들은 후보 개인의 성향이나 인생관이 아니라 공약에 공감해 힘을 보태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공약을 지키라고 실어준 힘을 다른 활동에 쓴다는 것은 동의 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선본의 성향이나 인생관이 만 이천 명 학생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자체할 계획이다. 이번 시국에 대해서는 현 총학이 잘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선본이 당선되면 내년을 준비할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가 종결되고 상반기 취업시즌이 돌아오면 학생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 돌봐줘야 한다고 생

각한다. 이 때문에 선본을 비운동권으로 표현했다.

Q. 공무원 장학 신설이 왜 필요한가
공약집에는 공무원시험 관련된 부분만 실려 있지만 취업스터디와 같은 보다 많은 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 있다. 공약집에 그것을 실지 않은 이유는 이미 취업진로처(취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취진처 예산삭감으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시험 외의 취업지원은 취진처 삭감예산을 되찾는 방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많은 수의 학생이 노량진이나 공무원시험준비반(공시반)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안다. 경경대학교와 문과대학이 공시반 운영권을 두고 대립했을 정도다. 그러나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다. 그들 사이에서 ‘경희대까지 와서 9급 준비하나’, ‘학교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따위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흔하다. 자기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 장학을 9, 7급에까지 확대하면 좀 더 자유롭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기대한다.

Q. 재원마련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재원마련 부분은 공시장학 신설에 관해서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다. 취진처 예산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지원예산까지도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대학의 재정문제는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논의되는데 그칠 것이 아니다. 학교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학내 활동을 위축시켜 왔던 여러 제약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수와의회에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교수들 사이에도 재정악화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수와의회에 문제원인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 함께 활동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실제로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계신 교수

님들이 많으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투쟁의 영역이라고 본다.

Q. 학내윤리강령이란 무엇인가?
고 서정범 교수님 사건을 주도로 주체는 총여학생회(총여)였지만, 다음 주체는 총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학내윤리강령은 공신력 있는 발안주체인 학생대표기관의 윤리성이 대표자의 개인적인 자질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누가 학생대표기관의 대표자가 되더라도 고 서정범 교수님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 제도로써 개인적 자질의 부족함을 메워줄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강제력을 부여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최소한의 윤리성이 지켜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윤리강령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Q. 재논의 돼야하는 성적평가방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경영대학이 B0률을 시행한 이후, 재수강시에 받을 수 있는 학점을 제한하는 단과대학이 등장하는 등 성적평가에 대한 대학의 규제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대학의 역할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인데, 인위적인 서열화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 평균 학점이 낮아지면 취업시장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나 경영대학 B0률 관련 공청회에 참석했을 때 ‘벽에 대고 말하는’ 느낌을 받았다. B0률을 다루는 학교 측 태도가 워낙 강경했다. 또한 경영대학은 학생이 워낙 많으니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경영대학 학생회가 성적평가방식 관련 대응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 총학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Q. 성평등위원회 신설을 위한 공청회 개최, 논란이 뜨겁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공약이다. 총여가 학내에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공식기구인 상황에서 성평등위원회



▲ 정후보(우) 김민호(경영학 2011), 부후보(좌) 함현민(관광학 2015)좌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게, 자칫 여성 권리신장이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잠깐 회사에 다닌 적이 있다. 상사에게 커피를 타다 주니 ‘신입여직원이 있는데 왜 니가 커피를 타냐’라는 말을 하더라. ‘남자가 탄 커피가 뭐가 맛있냐’는 소리도 덧붙였다. ‘같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런 대우를 받는구나’하고 충격을 받았다. 상사가 지목한 신입이 친한 친구여서 더 뼈저리게 느꼈다. 그때부터 ‘남성의 인식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데 학교에 돌아와 보니 총여에 건의하는 게 쉽지 않더라. 특히 남자가 총여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금기시 되는 분위기도 느꼈다.
이러한 편견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성평등위원회 신설 공약으로 이어졌다. 공청회의 목적은 총여 폐지가 아니다. 우리 선본이 총여 폐지를 의도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우리 선본의 생각은 공청회 결과에 절대 개입되지 않을 것이다. 공청회에서 총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남녀 간의 생각을 교환

할 새 기구를 따로 신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대한 다수의 학생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캠퍼스 12,000명 학생 중 여학생들이 7,000명이다. 공청회 결과에는 당연히 여학생들의 생각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 결과를 현실화하는 절차 또한 민주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당선 이후에 성평등위원회 신설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면 적극적인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총학 후보자가 공약으로 들고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공론화 될 것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선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터부시했던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게기가 됐으면 한다.

Q. 선거에 임하는 포부
우리 선본과 공약에 대해 많은 학생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 선본 ‘경희의 화합’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당선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항상 겸손하고 노력하는 총학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지지 부탁드린다.

“7,000 여학생에게 다가가는 총여 되겠다”

‘우리사이’ 총여 후보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Q. 입후보를 결심한 이유는?
2년 동안 집행부를 하면서 여성주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고, 고민도 했다. 현재 총여가 페미니즘을 공론화 시켰는데, 단순히 공론화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다.

Q. ‘우리 사이’라는 선본명은 무슨 뜻인가?
우리의 모토가 ‘7,000명 여학생에게 더 가까이 가자’다. 학생들과 더 많이 소통해 ‘우리 사이’를 좁히자는 의미의 선본명이다.

Q 57지 공약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과 관련된 ‘총여 대나무숲 만들기’와 ‘Light Up’ 공약이다. 집행부를 하면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주제로 담론을 이어나가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동시에 익명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총여 대나무숲 만들기’ 공약을 걸게 됐다. ‘Light Up’ 공약이란 늦은 시간

에 규찰대를 운영해 어두운 학내는 더 밝게, 여학생들의 마음은 더 가볍게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말 뿐이 아닌,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공약을 내게 됐다.

Q. 총여는 현재 오프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페이스북에는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이 운영되고 있다. 따로 총여 대나무숲을 만들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프라인 소통창구는 청운관 여자화장실에만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총여 페이스북 페이지는 주로 활동에 대한 알림을 하는 곳이라 학생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제보를 받기에 적절한 공간이 아니다.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은 주로 학생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성주의적 주제에 대한 담론을 펼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총여 대나무숲을 만들어 오프라인에서 편하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Q. ‘Light Up’ 공약의 규찰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구성할

것이며, 봉사시간으로 인정 받도록 할 것이다. 특히 미술대학(미대)과 후문은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 다른 곳보다 더욱 위험하다. 미대는 학생들이 야작을 할 때 외부인이 작품을 훼손하고 간 경우도 있었다. 두 곳을 위주로 규찰대가 순찰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3월에 먼저 실행한 다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겠다.

Q. 현 총여 ‘투게더’의 자치회비 결산 공개 공약을 이어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어느 곳에서도 자치회비 결산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사이’ 선본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2015학년도 총여 또한 임기가 끝나고 결산을 공개했다. 아마 이번 총여 또한 그럴 것 같다. 이 점에 의문을 가진다면 좀 더 자주 결산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의논해보겠다.

Q. 전임 총여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나?
페미니즘에 대해 담론화 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단적인 예로 칼럼니스트 등을 초대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의 경우, 작년보다 올해가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다.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었는데 총여 활동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됐다



▲ 정후보(우) 양해인(국어국문학 2015), 부후보(좌) 신다은(문화관광콘텐츠학 2015)

는 말도 들었다.
또한 정책 피티와 강의실 방문을 할 때 확실히 여학생들의 눈빛이나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꼈다. 페미니즘을 더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전임 총여의 활동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Q.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는?
페미니즘의 공론화가 공론화로 끝나지 않도록 여학생들과 총여,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겠다.
또한 정책 피티, 강의실 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